

언론인의 품위



▲ 2014-3042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4년 4월 24일자 「야 이새끼야, 여기가 아무나 오는데야?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부들 해경 폭언에 대부분 철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아무나 오는 데야?”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부들 海警 폭언에 대부분 철수

그동안 쌓였던 갈등 폭발

“생업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이런 모욕 당할 줄 몰랐다”

“야 이 새끼야, 여기가 아무나 오는 데야?”

지난 22일 오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km 사고 현장. 세월호 승객 수색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부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대형 바지선에 타고 있던 해경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현장에 있던 한 민간 잠수부는 “바지선으로 옮겨 타려는데 갑자기 책임자로 보이는 해경이 욕을 했다”며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온 현장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바지선 책임자였던 이 해경은 당시 민간 잠수부들의 잠수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바지선에 있던 민간 잠수부들은 대부분 1만번 이상 잠수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욕설은 민간 잠수부가 아니라 고무보트를 조종하는 해경에게 한 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잠수부들의 대표 격인 특수구조봉사단 황대영(62) 회장은 “‘아무나’는 명백히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민간 잠수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월호 구조 작업이 8일째 이어지면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해경과 자원한 민간 잠수부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황 회장에 따르면 22일 육설 사건이 알려지면서 구조 작업에 자원했던 민간 잠수부들이 대거 철수했다. 구조 작업에 자원한 민간 잠수부는 총 512명. 이 중 이날까지 현장에서 남아있던 민간 잠수부 200여명 중 30여명 정도만 남고 모두 귀가했다고 황 회장은 전했다. 23일 오전 구조 현장에 간 민간 잠수부는 11명뿐이었다. 민간 잠수부들은 “잠수를 하기 전에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다. 이날 민간 잠수부인 김영기 한국수중환경협회 대전본부장이 “현장 철수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이런 갈등은 구조 작업 초기부터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의 지휘 통제에는 해경이 맡았지만, 구조 작업에 해군과 민간 잠수부도 참여하는데,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휘체계가 없어 혼선이 생기고 갈등까지 빚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철(47) 돌핀수중 대표는 “우리도 정예 중의 정예만 추려서 온 건데 우리 실력을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민간 잠수부를 작업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UDT·SSU를 비롯해 베테랑 특수대원 수백 명이 대기하는 상황이고, 민간 잠수부도 절차와 시간대를 고려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4/24/2014042400096.html?csmain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수색 민간 잠수부들이 해경 폭언에 대부분 철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야 이 새끼야”란 욕설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 같은 욕설 표현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 ××야’라고 욕설을 감추더라도 의미 전달에 별 지장이 없는데

도 이를 그대로 내보낸 것은 편견이 작용했거나 선정성에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품위와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299 신문윤리강령 위반
新亞日報 발행인 김명수

〈주 문〉

新亞日報 2014년 10월 14일자 1면 「김명수 본지 회장·발행인 장남 결혼」 제목의(알림)란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 유〉



[알림]
김명수 본지 회장·발행인 장남 결혼
김명수 본지 회장·발행인의 장남 김석균이 이보라양과 14일 오후 4시 캐나다 밴쿠버 배퍼스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新亞日報는 위 신문 1면 하단에 가로 2단 크기의(알림)란을 통해 김명수 회장·발행인의 장남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돋보이게 보도했다.

일반인의 결혼식을 인물동정 면도 아닌 1면에 사고(社告)와 비슷한 독립 박

스 형태로 예고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는 사회적 공기인 신문 지면을 발행인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한 행태로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춰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은 언론의 사회적 공기성에 합당하는 높은 직업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 제7조 「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